

IPCC 기후변화대응 신규내용 추가

5차 보고서, 탄소 제거에 역점 ... 기온상승 억제 위해 에어로졸 관심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의 기후변화 대응에 새로운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2014년에 발표될 IPCC의 제5차 평가보고서에는 지구공학과 에어로졸 등 기존 보고서가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부문이 담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IPCC가 펴낸 보고서는 교토의정서 채택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 보고서가 발간되면 이상기후로 신음하는 지구를 구하기 위한 방향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1990년 처음으로 나온 평가보고서는 지구온난화의 증거를 과학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 억제 노력을 촉구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1992년)을 발족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또 1995년 2차 보고서는 인간의 활동으로 지구온난화가 발생한다는 결론을 통해 1997년 이산화탄소 배출 총량을 정한 교토의정서 채택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기후변화는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을 근거로 미래 기후변화를 전망한 4차 보고서(2007년)에 이어 5차 보고서는 기온 상승을 줄이는 방법적인 측면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인간활동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라젠드라 파차우리 IPCC 의장은 10월14일 총회 폐막 기자회견에서 “5차 보고서에는 지구공학, 에어로졸 등 새로운 부문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구공학은 특수기술을 사용해 대기 중의 탄소를 제거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으로 1991년 필리핀 피나투보 화산 폭발로 2000만톤의 미세입자들이 분출해 지구 온도가 0.5도 떨어진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구공학에 대한 관심이 증폭됐다.

인공화산 폭발 등을 통해 분출된 수백만톤의 먼지인 에어로졸이 지구 성층권을 뒤덮어 태양에서 들어오는 빛을 반사하면서 기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공화산 폭발과 같은 지구공학적 방식이 아마존이나 아프리카 지역의 강수량을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반발의 목소리도 있다.

한편, 보고서에는 풍력, 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대책 등도 제시될 전망이다.

파차우리 의장은 “지구공학 외에도 신·재생 에너지와 해수면의 상승, 극한기후, 기후변화 완화 등의 분야도 포함되는 등 기후변화와 관련한 모든 것을 보고서에 담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10/15>